농촌진흥청 | 동정 자료 |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

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. 5.(월)

농촌진흥청, 국가 가축유전자원 보존 현장 점검

-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 등 악성 가축 질병 대비 차단방역 체계 확인
- 염소 산업 육성 및 가축유전자원 주권 확보 위한 현장 소통
-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(UN FAO) 가축유전자원 등록 확대 등 국제적 위상 강화 강조

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5일 경남 함양군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방문해 국가 가축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, 직원들과 소통 시간을 가졌다.

이 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,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을 언급하고,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.

또한, 이 청장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염소 산업과 관련해 재래흑염소 기반 신품종 개발 및 첨단 번식·사양·질병 관리 기술 연구 현장도 점검했다. 이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가축 자원 주권 확보에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,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.

이날 이 청장은 “미래 축산의 핵심 자산인 우리나라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 보존, 관리할 수 있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.”라며, “염소가 주요 축종으로 자리 잡고, 관련 산업이 도약하는 시점에서 선제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달라.”라고 당부했다.

가축유전자원센터는 한우와 재래돼지 등 6축종 2,400여 두의 생축과 47만 여점의 생식세포를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고 있다. 특히 우리나라 고유 가축유전자원 22축종 170계통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(UN FAO)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(DAD-IS)*에 등록하는 등 국제적 가축유전자원 주권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.

붙임. 축산 연구 현장(가축유전자원센터) 방문 계획

담당 부서	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	책임자	센터장	한만희 (055-960-3510)
		담당자	연구사	송희망 (055-960-3522)

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| OPEN 공공누리

붙임 **청장님 축산 연구 현장(가축유전자원센터) 방문 계획**

□ 현장방문 개요

○ 일　시 : 2026. 1. 5.(월) 15:00 ~ 16:00

○ 장　소 :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(경남 함양군 서상면)

○ 참석자 : 청장님, 가축유전자원센터장 및 센터직원 등

○ 내　용 : 가축 악성질병(HPAI·ASF 등) 대응 차단방역 상황 점검 및 직원 독려

◈ 방문포인트

① **(업무보고)** UN FAO DAD-IS 등록(22축종 170품종·계통)을 통한 국제 주권 강화 논의

② **(간담회)** 자원 주권 확보 및 염소 산업 발전을 위한 직원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

③ **(현장점검)** 염소 신품종 개발 및 첨단 번식·사양·질병 관리 기술 개발 현황 점검

□ 세부일정

시　간	분	주 요 내 용	비　고
14:30 ~ 15:00	30'	◦ 이동 (함양 → 가축유전자원센터)	31㎞
15:00~15:10 <업무보고>	10'	◦ 가축유전자원 차단방역 및 국가 주권 확보 현황 * UN FAO DAD-IS 등재성과 및 자원 관리 방안 등 ◦ 염소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현황 및 계획	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
15:10 ~ 15:40 <간담회>	30'	◦ 가축유전자원센터 직원소통 및 청장님 격려	가축센터 3층 강당
15:40 ~ 16:00 <현장점검>	20'	◦ 염소 신품종 개발 및 첨단 번식·사양 관리 기술 시찰	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
16:00~17:10	70'	◦ 이동(가축유전자원센터→ 청)	85㎞